
TV선거개표방송의 방송그래픽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of Broadcast Graphic for TV Election Returns Broadcasting

신유섭
한국방송(KBS) 컴퓨터영상팀

Yoo-Seop Shin(seoby@kbs.co.kr)

요약

TV선거개표방송은 각 방송사의 공공적 책임과 과학적 분석력, 제작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
런 이유로 각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의 제작에 많은 비용과 인력, 시설 등을 사용한다. TV선거개표방송은
그 제작과 형식, 표현 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그 중에도 선거관련정보를 전달하는 방송그래픽,
인서트그래픽은 제작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방식의 표현, 시각적 효과로 인해 근래의 TV선거개표방송의 중
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TV선거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의 영상구성요소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각 방송사는 인서트그래픽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그 시각적 이미지로, 정확하고 명
료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작기술발전에 의한 다양한 영상의 제작은 물
론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에 대한 방법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중심어 : | 방송그래픽 | 선거방송 | 인서트그래픽 |

Abstract

TV broadcast of election returns is an index to measure a public responsibility, scientific
analysis and production power in each broadcasting station. This is the reason why each
broadcasting station is spending a great amount of money, mobilizing many people and using
facilities. TV election returns broadcast has been advanced for decades, particularly in its
production, system and presentation. And, among those, broadcast graphic and inset graphic,
which are representing election-related information, have become the important components in
TV broadcast of election returns because of the advancement of production technology, a variety
of presentation forms, and the visual effects. In this research, I analyze the part of image
composition in inset graphic of TV election returns broadcast. As a result, in making insert
graphic, each broadcasting station is analyzed to be producing the accurate and clear delivery of
information on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a visualized form, first and foremost. It requires that
we research the methodology for the accurate and reliable delivery of information, as well as
various image productions with a result of the progress in production technology.

■ keyword : | Broadcasting Graphics | Election Broadcasting | Insert Graphics |

I. 서론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이고, 이는 선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의 민주주의 하
에서 선거는 누가 어떻게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

1. 연구배경

가를 결정하는 민주정치의 핵심과정이다[1]. 미디어 크라시, 텔레크라시, 텔레폴리틱스라는 단어들이 의미하듯이 현대 민주주의 선거에서의 미디어, 특히 TV는 그 역할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부터 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득표활동을 하는 본격적인 선거방송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선거방송은 방송연설과 토론방송, 경력방송, 방송광고, 개표방송 등 5개 분야다. 이 중 개표방송은 선거 저널리즘, 여론조사 등의 과학성과 방송제한 기술이 결합한 종합방송 장르이다. 또한 스튜디오, 중계차, 구성물, 실시간 데이터 방송 등 구성상 다양한 리소스의 복합적 특성을 가진 방송이다. 따라서 선거 개표방송은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뉴스적 가치와 중요성 이외에 각 방송사의 제작 경쟁력을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4]. 이러한 이유로 각 방송사에서는 선거개표방송의 제작에 많은 비용과 인력, 시설 등을 사용한다.

선거개표방송에서의 인서트그래픽은 주로 집계된 투, 개표결과와 해당 선거의 관련정보를 해설, 분석, 정리, 계산하여 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인서트그래픽을 통해 선거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동시에 시청자들은 각 방송사개표방송의 공정성과 과학적 분석, 제작 기술력 등을 시각적으로 직접 표현되는 인서트그래픽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선거개표방송에서의 인서트그래픽은 그 내용과 영상구성요소들로 해당 방송사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내용

선거개표방송을 제작하는 각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개표방송에서의 인서트그래픽 제작에 많은 비용과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은 신속하고 명료한 정보전달이라는 역할 외에 해당 방송사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TV선거개표방송의 인서

트그래픽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미비하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개표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서트그래픽을 분석하였다. 공중과 방송3사에서 제작된 2007 대선, 2008 총선의 TV선거개표방송에 사용된 인서트그래픽 중 총 113개의 인서트그래픽의 영상구성요소의 내용분석을 통해 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의 영상구성요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이러한 TV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의 영상구성요소의 특징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명료한 전달과 TV 영상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의 시각적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선거방송에 대한 논의

정치 방송의 한 분야로서 선거방송이란, 선거와 관련된 뉴스, 인터뷰, 다큐멘터리, 보도 특집, TV연설, TV토론 등을 총칭한다[11].

우리나라에서 방송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제5대 대통령 선거(63.10.15)부터이다. 당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할 수 있었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송시설은 후보자 경력방송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제7대 대통령선거(71.4.2)까지 지속되었으나, 제8대 대통령 선거(72.12.23)부터 제11대(80.8.27)까지는 폐지되었다. 그 후 제12대 대통령 선거(81.2.25)부터 다시 허용되어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6].

1987년 12월 16일에 실시된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의 후보자 연설 및 그 후보자 지지 연설은 방송을 통해 득표활동을 하는 선거방송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텔레비전 매체의 막강한 영향력이 입증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강조되기도 했다[12].

현재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방송은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방송광고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별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의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은 방송사의 부담으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외에 후보자의 연설을 TV 혹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다.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한다.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사가 주관하는 경력방송이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과 토론회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이다.

III. 방송그래픽에 대한 논의

1. 방송그래픽의 정의

방송그래픽이란 방송프로그램 내에 사용되는 자막, 문자, 사진, 아트워크 등을 의미한다[7]. 방송그래픽은 방송영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타이틀, 프로그램 인서트, 드라마 등의 특수효과, 색보정, 2D/3D 애니메이션, 각종 후반제작 등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3]. 방송그래픽은 사용목적별, 제작유형별, 전달내용별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는 분류가 가능하다. 방송그래픽을 사용 목적별로 구분하면 방송사의 편성정보전달을 위한 방송그래픽과 프로그램을 위한 방송그래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방송그래픽의 분류

2.1 편성 방송그래픽

방송편성을 위해 사용되는 방송그래픽은 방송사에 대한 정보와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방송그래픽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편성 방송그래픽에는 사인 온/사인 오프(Sign On/Sign Off), CI(Channel Identity), ID(Station Identification)가 있다.

“사인 온”과 “사인 오프”는 각 방송사의 1일 편성된

방송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방송그래픽으로 “사인 온”은 방송의 시작을, “사인 오프”는 방송의 종료를 알린다. 해당 방송사의 방송 지표, 정책, 목표, 편성 책임자에 대한 정보와 자사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영상과 음향을 이용, 자사에 대한 정보전달과 홍보목적용을 가지고 있다.

CI(Channel Identity)는 방송사마다 고유의 심볼, 캐릭터, 관련 이미지 등을 사용,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각 방송사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방송그래픽을 이야기한다.

ID(Station Identification)는 방송편성, 프로그램, 캠페인 등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방송그래픽을 이야기한다. 활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편성 ID, 프로그램 ID, 캠페인 ID, 시즌 ID 등이 있다.

2.2 프로그램 방송그래픽

프로그램 방송그래픽은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타이틀 관련 그래픽과 인서트 그래픽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타이틀 그래픽

방송그래픽의 “타이틀”이란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낸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나, 성격, 내용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오프닝타이틀, 서브타이틀, 코너타이틀, 클로징타이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프닝타이틀은 주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고 제목을 나타내는 로고와 그 로고의 애니메이션, 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배경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구성된다.

서브타이틀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거나 광고가 방송되고 있는 중에 화면의 좌측 혹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타이틀 로고를 이야기한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코너타이틀은 한 프로그램 내의 여러 개의 코너 프로그램들이 있을 경우, 또는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의 안에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경우, 혹은 각 단락의 타이틀을 의미한다.

클로징타이틀은 프로그램의 종료는 알린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프로그램의 제목과 함께 “끝” 또는 “다음

이 시간에”등이 자막과 함께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다음 편 예고와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2.2.2 프로그램 인서트그래픽

매스컴대사전에서는 인서트그래픽, 즉 인서트(Insert)를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어떤 장면에 새로 추가하거나 또는 본래의 것을 바꿔 넣는 샷, 인서트 썸, 인서트 샷이라고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만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촬영이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된다. 다음은 인서트그래픽의 유형 분류이다.

- ① 차트 : 어떠한 사실을 객관화된 자료에 근거하여 해설, 분석, 정리, 계산 할 경우에 사용되는 인서트그래픽을 이야기한다. 차트에는 크게 막대(bar) 그래프, 원(pie)그래프, 꺾은선(ferver)그래프, 표(table)가 있다[9].
- ② 지도 : 지도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여 특정대상의 위치, 이동, 분포, 경계, 경로 등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③ 문자 : 단어나 문장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미를 정의하거나 설명할 경우에 사용되는 인서트그래픽을 의미하며 ‘자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④ 문헌자료 : 특정 도서나 문서 등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서트그래픽이다. 문헌에 있는 일부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그 내용을 번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 ⑤ 영상자료 : 영상, 그림, 이미지 등 그 자체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인서트그래픽을 이야기한다.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부각시키거나 별도의 표시를 할 경우,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 ⑥ 시뮬레이션 : 설명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이나 어떤 상황 등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분석하거나 묘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이나 상황을 재현하고 묘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⑦ 가상스튜디오(Virtual Reality Studio) : 컴퓨터그

래픽으로 설정된 가상공간에서 MC나 연극자가 연기를 할 때 실제공간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라 할 수 있다. 가상스튜디오는 실제세트를 대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인 세트를 표현할 수 있다.

IV. 개표방송에서의 방송그래픽

선거개표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 특히 개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기술 측면에서 분류하면 정보방송의 한 형태인 것이다[6].

선거개표방송은 각 방송사별로 또 선거의 종류별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방송그래픽 역시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된다. 선거개표방송의 방송그래픽을 사용 목적별로 구분하면 크게 타이틀 류와 인서트 그래픽 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타이틀

선거개표방송 그래픽에서의 “타이틀”이란 프로그램의 시작을 나타내는 영상을 의미한다. 개표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나, 성격, 내용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오프닝 타이틀은 주로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고 제목을 나타내는 로고와 그 로고의 애니메이션, 또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배경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구성된다. 서브 타이틀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거나 광고가 방송되고 있는 중에 화면의 좌측 혹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타이틀 로고를 이야기한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고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너 타이틀은 한 프로그램 내의 여러 개의 코너 프로그램들이 있을 경우, 또는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의 안에서의 내용을 구분할 경우 각 단락의 타이틀을 의미한다.

클로징 타이틀은 프로그램의 종료는 알린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프로그램의 제목과 함께 “끝” 등의 자막

과 함께 사용된다.



그림 1. 방송3사 2007 대선개표방송 방송그래픽

2. 인서트그래픽

선거개표방송에서의 인서트그래픽은 해당 선거의 당선자 예측과 투·개표의 진행상황과 결과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해당 선거의 전국 및 지역별 투표율과 개표율, 후보별 득표율 등의 상황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다.

선거개표방송 인서트그래픽은 주로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수치를 이용하여 전달하게 되는데, 주된 표현 방법으로는 차트를 활용한 인서트그래픽이 주를 이룬다. 차트는 크게 막대(bar)그래프, 원(pie)그래프, 꺾은선(ferver)그래프, 표(table)로 구분할 수 있다[9]. 선거개표방송에서의 인서트그래픽으로 차트를 주로 활용하는 가장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그래픽 요소들의 길이, 넓이, 높이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시청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V. 분석방법

데이비드 허블(David Huble)과 토스텐 위젤(Tosten Wisel)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데 색, 형태, 깊이, 움직임 4가지 기본적인 영상구성요소에 반응한다고 하였

다(P. M. Laster.1996).

허버트 제틀(Herbert Zettle)은 영상의 구성 요소를 빛과 색상,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시간과 동작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2차원 공간은 카메라의 시점에 의한 화면의 구도를, 3차원 공간은 화면의 깊이와 볼륨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상요소구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송3사의 2007 대선과 2008 총선의 선거개표방송에서 사용된 KBS 49개, MBC 40개, SBS 24개, 총 113개 인서트그래픽의 영상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1.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 [표-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과 방송3사의 2007년 대통령 선거개표방송에서 사용된 인서트그래픽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결과를 토대로 선거개표방송 제작에 있어 인서트그래픽의 체계적 제작과 효율적 활용,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한다.

표 1. 분석틀

연구내용	분석유목	단위
인서트그래픽 영상구성요소	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형태	영상의 구도
	깊이	영상의 깊이 표현
	움직임	그래픽의 애니메이션

2. 분석 유목 및 단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영상구성요소 이론을 바탕으로 색, 형태, 깊이, 움직임, 각 분석 유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조색은 영상의 주요 이미지를 결정하는 색상으로 화면에서 65%에서 70% 가량을 차지하는 색상을 의미한다. 보조색은 주조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색상으로 화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색상으로, 강조색은 화면의 5% 내외의 면적을 차지하는 색상으로 강조 및 기능성을 갖는 요소에 사용하는 색상을 의미한다[5].

화면의 형태는 카메라의 시점에 의한 구도로, 수평

구도, 부감 구도, 양각 구도, 경사 구도로 구분한다.

2차원 영상에 3차원적인 깊이를 표현하는 기법으로는 원근법을 이용한 방법, 피사계 심도를 이용한 방법, 조명과 색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원근법은 소실점에 의한 선상원근법과 대기의 영향에 의한 공기원근법이 있다. 피사계 심도는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깊이의 표현 방법이며 조명과 색을 이용한 방법은 전경과 배경의 조명의 밝기와 색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깊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10].

움직임은 그래픽 요소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인서트그래픽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래픽 요소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동시에 있을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움직임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인서트그래픽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요소와 그 움직임을 선택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픽 요소의 움직임은 그래픽 이미지, 사진, 영상, 3차원 오브젝트 등 그래픽적인 요소들의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이동, 회전, 크기, 투명도 변화로 구분한다.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팬(Pan), 틸트(Tilt), 달리(Dolly), 붐(Boom), 아크(Arc)로 구분한다.

VI. 분석결과 및 요약

1. 색

공중파 3사의 2007년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 색상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민셀의 10색상환을 기준으로 색상을 구분하였다.

선거개표방송에서 사용된 인서트그래픽의 색상을 분석한 결과, 인서트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조색으로 파랑색 36.50%, 무채색 27.40%, 청록색 15.90%의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랑색은 딱딱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가지며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특성을 가진다. 무채색, 즉 회색은 보수적이며 중립적 성격을, 청록은 차고 이지적이며 심미적인 느낌을 준다. 인서트그래픽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안정감 있는

영상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주조색을 보완하는 역할의 보조색은 파랑색 34.50%, 청록색 25.70%, 무채색 21.20%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보조색의 활용은 주조색과 동일 색상, 유사 색상을 활용함으로써 각 인서트그래픽의 영상에 통일감을 주고, 강조색에 의한 해당 정보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 인서트그래픽의 색상분석 (빈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기 호	R	4(3.54)	2(1.77)	22(19.46)
	YR	11(9.75)	7(6.20)	19(16.83)
	Y	2(1.77)	-	37(32.75)
	GY	-	-	
	G	5(4.42)	11(9.75)	5(4.42)
	BG	18(15.90)	29(25.70)	2(1.77)
	B	41(36.50)	39(34.50)	4(3.54)
	PB	-	1(0.88)	-
	P	-	-	2(1.77)
	RP	1(0.88)	-	-
	N	31(27.40)	24(21.20)	22(19.46)
합계	113(100)	113(100)	113(100)	

강조 및 기능성을 갖는 강조색은 노랑색 32.75%, 빨강 19.46%의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난색계열의 채도가 높고 자극적이며 높은 명시성을 가졌기 때문에 난색계열의 색이 주로 강조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형태

TV 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의 구도는 수평구도 80.55%, 부감구도 11.50% 순으로 사용되었다. 수평구도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신뢰감, 보수성 등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영상형태에 있어 수평구도의 경우가 많은 것은, 시청자들에게 영상에 대한 시각적인 안정감과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유도하고, 그 외의 구도에 의한 영상의 왜곡에 의한 특정 정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인서트그래픽의 영상형태 분석

	빈도(%)
수평구도	91(80.55)
부감구도	13(11.50)
양각구도	5(4.42)
경사구도	4(3.53)
합계	113(100)

3. 깊이

인서트그래픽 영상의 깊이의 표현은 색을 이용한 경우가 76.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근법과 심도의 표현은 주제 이외의 여러 그래픽적인 요소와 효과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주제 부각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색을 이용한 깊이의 표현은 원근법이나 심도를 이용한 표현에 비해 주제가 되는 그래픽 요소의 부각에 효과적이다.

표 4. 인서트그래픽의 깊이표현 분석

	빈도(%)
원근법	22(19.48)
심도	5(4.42)
색	86(76.10)
전체	113(100)

4. 움직임

인서트그래픽에 있어서 그래픽 요소의 움직임은 표현하려는 해당 그래픽 요소만을 부각시켜, 시청자들이 중요한 정보에 주목하고, 짧은 시간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키려는 사용된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그래픽 요소의 크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Scale이 39.82%, 투명도의 변화 Fade가 23.90%, 그래픽 요소의 이동 20.32%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표 5. 그래픽요소의 움직임 분석

움직임 요소	빈도(%)
Scale	45(39.82)
Move	23(20.35)
Rotate	18(15.93)
Fade	27(23.90)
전체	113(100)

인서트그래픽에 있어서 카메라의 움직임은 부분적인 영상의 강조보다는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인서트그래픽의 도입부에 사용되는데, 그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카메라의 움직임 분석

움직임 요소	빈도(%)
Pan	19(16.82)
Tilt	5(4.42)
Dolly	60(53.10)
Arc	29(25.66)
전체	113(100)

카메라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 Dolly가 53.10%, 피사체를 축으로 호(弧)를 그리면서 이동하는 Arc가 25.66%, 카메라 시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Pan이 16.82%의 순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Dolly, Arc 등은 카메라의 이동에 의해 많은 정보를 화면에 담을 수 있고 인간의 실제 시각과 비슷한 느낌의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표현되는 영상에 비해 역동적인 영상의 움직임으로 시청자들에게 영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Ⅶ. 결론

1. 분석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을 유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V선거개표방송에 사용되는 인서트그래픽의 색채 활용은 영상의 안정감과 신뢰감, 그리고 정보의 명료한 전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 구도에 있어서도 주로 수평구도를 활용함으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영상의 안정감을 우선하는 것으로, 또 깊이감과 움직임의 표현에 있어서도 시각적 효과보다는 영상의 안정감과 정보전달의 명료함을 우선으로 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TV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은 심미성보다는 기능성, 즉 프로그램의 성격과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시청자의 신뢰감 유도를 주

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은 선거결과에 대한 모든 상황과 관련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기에 TV선거개표방송의 인서트그래픽을 구성 및 제작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 영상 이미지의 표현을 우선하여야만 한다.

2. 결론

최근 TV선거개표방송에 대한 각 방송사의 제작 역량이나 기술수준은 거의 평준화되고 있어 사실상 타사와의 차별화와 함께 뛰어난 크리에이티브의 경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4]. 이러한 이유로 각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다양한 제작 방식을 동원, 제작에 활용한다. 이러한 차별화로 흥미 위주의 볼거리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TV선거개표방송과 같이 사회 전반에 대한 과급 효과가 크고 공적 책임이 따르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는 경쟁적 차별화보다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명료한 정보전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V선거개표방송과 같은 공적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에는 그 모든 구성요소에 있어서 방송사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특히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는 인서트그래픽의 경우는 선거개표과정의 모든 상황과 관련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시청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 TV선거개표방송은 물론 모든 공적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확성, 시청자에 대한 배려 등은 방송 제작에 있어 가장 큰 가치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 [3] 정동욱, “방송영상디자인” MJ미디어, p.189, 2007.
- [4] KBS, “2008총선방송백서”, p.29, 2008.
- [5] KBS, “KBS 영상색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컬러 가이드”, p.14, 2003.
- [6] MBC, “1퍼센트의 승부”, p.207, 1999.
- [7] 이훈상, “선거관련법에서 본 선거방송”, 한국방송학회, Vol.3 No.1, pp.107-120, 1992.
- [8] 김홍련, “방송용어사전” 화인재, 1992.
- [9] 디자인하우스, “월간디자인”, 2001년 5월호, 디자인하우스, pp.94-95, 2001.
- [10] 금동호, 박덕춘, “영상 미학”, 1998.
- [11] <http://terms.naver.com>
- [12] <http://www.mediagaon.or.kr>

저 자 소 개

신 유 섭(Yoo-Seop Shin)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미술학사)
- 2008년 8월 :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문학석사)
- 1999년 ~ 현재 : 한국방송공사(KBS) 컴퓨터영상팀 디자이너

<관심분야> : 방송그래픽, 방송특수영상, 영상디자인

참 고 문 헌

- [1] 구교태, “한국 방송의 선거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1호, p.5, 2008.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9.2.12, 법률 제9466호.